



02 INDIESTORY 

**CinemaDAL** 06  
INDEPENDENT FILM DISTRIBUTION COMPANY

INDIEPLUG 10

14 a'muse

독립영화 배급사의

은밀한 속사정

16 ISSUE 유미씨와 함께 맞는 봄, 지금 여기! 18 Q&A 인디다큐 시간여행 (당신과 나의 전쟁)

20 TELL ME SOMETHING 21 RELAY TALK 22 SHORT STORY 극장전



잘 생겼다, 잘 컸다,  
예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다오!

독립영화 배급사 1호  
인디스토리

1998년 11월, 국내 최초의 독립영화 전문 배급사가 만들어졌다. 올해 나이 꽃다운 빈센 16세가 된 인디스토리다. 단편영화의 국내와 배급으로 시작했던 인디스토리는 2000년 (대학로에서 토막살해 당한 여고생 아지 대학로에 이다.) 이후로 장편영화 배급에 뛰어들었고, 이후 홍보마케팅, 제작, 해외영화 수입에 착수하면서 독립영화 시장에 새로운 판로를 구축하는 데 열중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296만이라는 관객 동원 기록을 이룬 <워낭소리>와, 매해 10여 권 이상의 장편 독립영화를 개봉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인디스토리는 사립으로 치면 청춘의 진인료로 돌아설 나이지만 독립영화계에서는 터줏대감 소리를 들어오며 여색히 담다. 어느덧 회사를 고안하고 대표님의 건강(가도 걱정해야 할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입사 3년 차 나무나 장편사립부 배급팀 과장, 입사 7년 차 조계영 홍보마케팅 팀장, 그리고 입사 15년 차 작품수 대표가 들어놓는 인디스토리의 비밀 이야기를 전한다.

자기소개를 겸한 자기 자랑을 부탁한다.

**조계영:** 장편영화 홍보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자기 자랑은 없다. 올해 41살이 되어서 나이로는 남부럽지 않은 정도? 그래도 대표님보다는 건강하다.

**나무나:** 장편 배급을 맡고 있다. 자랑거리가 없다. (웃) 미묘? 그런 이야기들 들어서 육도 같이 먹는다.

**곽용수:** 내 소개는 굳이 뭐…… 뭐냐 유행하니까, (웃음)

주변 사람들에게 인디스토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나무나:** <워낭소리> 됐지만, 그걸로 부모님이 칭찬해 주었다. 그런데 주변에다가 영화사 다닌다고 하면 어떤 영화를 봤냐고 묻는데, 최근 걸 말해 주도 모른다. 그래서 랜던한 이야기 안 한다.

**조계영:** 이제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회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한다. 인디스토리는 벌써 15년이 넘었고, 대표님은 굉장하다고.

**곽용수:** 나도 <워낭소리>,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한다고 구구절절 설명할 때도, 결국에는 '독립영화가 뭐예요?'라고 물었다. 아젠 그냥, <워낭소리> 배급했어요, 그러면 어!

**얼마 전에 인디스토리의 창립 15주년 기념 영화제를 했다. 그때 배색화 감독이 만든 <인디스토리는 왜 배색로데이에 만들어졌나?>가 심영했다. 이따가 자기 사살인가?**

**조계영:** 완전 허구다. 진짜로 여자한테 인기 끌려고 회사를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다. 15년 전 이야기라 우리 잘 모르지. 그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는 실제로 내가 배색로데이 3~4일 전 길거리에 상처입 썩어 있던 배색로를 잡다가 중학생들에게 걸렸던 예비스드. 결국 상자를 다 망가뜨린 게 미안해서 근처 편의점 가서 배색로만 4만 원이치 사 왔다.

**곽용수:** 남자 주인공이 너무 별로 닮지도 않았다. 그냥 배색로데이라는 건 건강하지도 개지고, 위구기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자나고 보니 배색로데이었던 거지.

**조계영:** 그만큼 여자랑 별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다.

15년의 역사를 쌓아 오는 동안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랑 어떤 순간이 있던가?

**나무나:** 나는 호칭일 메를이오지 못해서, 평가 좋은 시절이란 게 없었다. 지금이 가장 큰 기고 가장 큰 위기로 생각한다. 올해 회사의 모토가 '혁신'이기도 한데 평가 권하위부 필요하면 시기인 것 같다.

**조계영:** 2008년이란 2009년 이 인디스토리에겐 굉장히 인상적인 해였을 거다. 2008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극장 개봉 영화가 3편 정도였다가 그해에 한 달에 한 편 정도 개봉했다. 그러던 중에 <워낭소리>가 개봉했고, 반대로 2009년엔 <워낭소리>의 후폭풍으로 얻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2008년, 10주년 기념 책자에 "이제까지 버티기였으면 나머지 10년은 뒤집기 한 판이 되겠다"라고 썼는데, <워낭소리>로 뒤집기는 됐는데, 5년 만에 다시 뒤집혀 버렸다.

**곽용수:** 두 사람이 한 이야기에 다 들어 있다. 전편처럼, 그전에는 단편 위주로 배급을 했었고, (KBS 독립영화관) 같은 안정적인 방송 시스템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조계영이 <살 걸>이라는 작품을 해서, 우리를 구해줄 주었다. (웃음) <워낭소리> 때 어 지원된 거는,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기획했던 호러영화 브랜드 제작이랑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독립영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다.

**<워낭소리>가 296만이라는 전무후무한 관객 수를 기록했는데, 부담이 되지는 않는가?**

**조계영:** 전혀, 꿈의 스킵이다. 지금은 다양성영화들이 정해진 과일을 쪼개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디더욱 힘들다. 배급사 입장에서는 한 작품이 대박 나서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보다는, 많은 라인업의 영화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흥행하는 게 더 안전적이다. 그게 안 되니까, 어느 하나라도 터져 주길 바라는 거지. 그런 건 일종의 미신이다.

**나무나:** <워낭소리> 이후로 전에는 없던 독립영화를 비롯한 다양성영화에 대한 타이틀이 명확해져 버렸다. 일상적인 이었다. 정확한 과일을 나누 수 있는 건 좋지만, 반대로 그런 타이틀이 결국에는 시스템이 만들어



조계영 흥보카메딩 팀장



나유나 나나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놓은 어떤 구분선 밖을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곽홍수:** 가장 큰 효과는 관객들이 독립영화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게 아닐까. 그전에는 독립영화는 비상업적인 영화라는 인식을 쥐어 홍보할 때 잘 쓰지 않고 대신에 인디영화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다가 <쉬닝소리>로 독립영화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또, 나에게는 빛나는 소재인 기회를 준 거! 사람들이 돈 버니까 소개문을 읽어봐 주더라. 기본 나빠서 다 거절했다.(웃음)

**최근에 독립영화 배급사들이 많아지면서 적은 변화는?**

**곽홍수:** 인디스토리라 혼자 있을 때는 공급되는 작품들이 다 꺼지지 못했다. 다른 기획사들이 생기다 난 이후로 서로 윈 윈 하는 지점이 있었다. 하지만 경쟁을 피할 수는 없었다. 가령 계약 조건이 제작비용에 유리하도록 수정된 게 있다.

**조계영:** 흥보카메딩 쪽에서는 SNS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홍보의 폭이 넓어졌다. 일할 때는 독립영화만 신경 쓰는 건 아니고, 상업영화 쪽에서 어떻게 흥보카메딩을 하는지도 의식한다.

**나유나:** 독립영화 쪽에서는 같은 시기에 개봉하는 독립영화들이 더러 있다. 예산 규모도 비슷하고, 크게 다른 한쪽이 더 돋보이지 않는데도, 우리 영화는 그 전에 못 들어가는데 다른 회사 영화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극장 상영은 어떤가? 한 영화가 개봉하면 일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은 확보되지는 않습니까.**

**나유나:** 독립영화를 비롯해서 다양성영화에 할당해 주는 숫자가 정화해나와 있다. 문제는 공급이 너무 많아진 거다. 지금 일주일에 개봉하는 예술영화만 12편 정도다. 그런데 CGV 무비플 라주, 롯데시네마 아트팩을 포함해도 칸 수가 40개가 안 된다. 새로 개봉하는 작품만 아니라 기존에 상영 중인 작품들도 있으니, 1회차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

**조계영:** 예산에 비해 상영관 수도 높고 개봉 영화 수도 많았다. 그런데 예전보다 한 편당 상영하는 회차는 줄었다. 관객의 규모, 그 사람들이 보는 편 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에 비해 영화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배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점점 더 시장 상황에 맞추는 경향

이 있다. 예전에는 작품만 보고 일을 했다면, 이제 는 개봉 후의 반응이나 마케팅의 여지까지 고려해서 고민한다.

**회사 내부적으로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나?**

**나유나:** 작품만, 감독만, 이렇게 딱 따고 있지 뭐 하나가 있는 건 아니다. 내 경우엔 70~80%는 관객이 들 만한 영화인가를 생각하고, 대표님은 조금 더 감독에 대한 거를, 팀장님은 홍보적으로 흥미롭게 잘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 같다. 시로누군가 놓친 지점을 잡아주고 제안을 하면서 함께 엮어나간다.

**조계영:** 인디스토리에서 한 5년 동안 작품을 봐 오면서, 새로운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 <애화, 동>이라는 작품을 했다고 치면 나중에 그와 비슷한 영화는 또 하고 싶지 않을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라인업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있다. <미남> 같은 경우는 나한테는 굉장히 색다르고, 조금은 특이한 영화였다. 상업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진위 지원을 받게 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 그래서 그 영화를 맡아서 하고자 했던 거다.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작품이 있나?**

**조계영:** 감독님이나 배우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작품을 했을 때. 홍보하는 게 진행 중에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감독



백만박을 기록하고 있는 배급 회사 인디스토리

지역적로 일반 리틀렛 빅스들에서 10년 넘게 고소헌해 보인다.



남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영화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애화, 동>은 관객과의 대화나 이런 게 재미있었고, <고양이 춤>은 손님이 오그더는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했던 게 재미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나유나:** 나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고양이 춤>은 입사하고 3년 정도만 안 돼서 맡았던 작품이다. 내가 맛보며 때이기도 했지만, 그 작품은 뭔가 제일 손이 많이 갔다. 사실 그 영화는 다른 회사에서 무조건 안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한테 온 작품이었다. 그런데 개봉 후에 인디스토리니까 이렇게 만들 여력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뜻도, 움직였다. 눈물이 날 뻔했네.

**인디스토리를 먹어 살리는 원천은 어디인가?**

**곽홍수:** 음…… 빌런인데. 우선 유, 대출(웃음) 우리 구조에서는 일정 정도 안정적으로 자본이 들어오는 거고, IPTV방 인디플리그에서 태생하고 있는 다운로드에서 들어오는 게 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영화들이 나와서 수익이 떨어지는 게 있다. 고민이다. 우리, 빌로 받고 있는 거야?

**조계영:** 요즘 많이 보는 걸은 아니다. 인디스토리는 15년이나 되었고, 영화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유지하냐고.

**나유나:** 나도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근데 사실

나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조계영:** 근데 나는 작은 경쟁비를 유지하면서 계속 하고, <쉬닝소리> 이후 몇 년간은 그 돈으로 먹고살았고, 지금은 매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대표님이 말한 것 외에, 단편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굉장히 재미가 매기다. 그리고 상영수입이 아주 적은 수의 수익이 있다.

**음에는 어떤 규칙적인 일들이 있는가?**

**조계영:** 첫 번째는 흥보제가 개런이다. 비유 대비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고 있고, 지금 TV방이 가동 중이다. 그리고 음 인디스토리에서 개봉하는 경관영화 라인업이 예년에 비해서 가장 많다. 또, 조직 개편도 한 두 번 정도 있을 것 같고, 세드코제? 2개, 안 될 거다. 세드코제를 할까 하는 거지. 짧은 피난탈출용. 지금은 약간 낡은 피들이 머물러서 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작한 영화 <드라운드의 이방인>이 개봉한다.

**골프로 대표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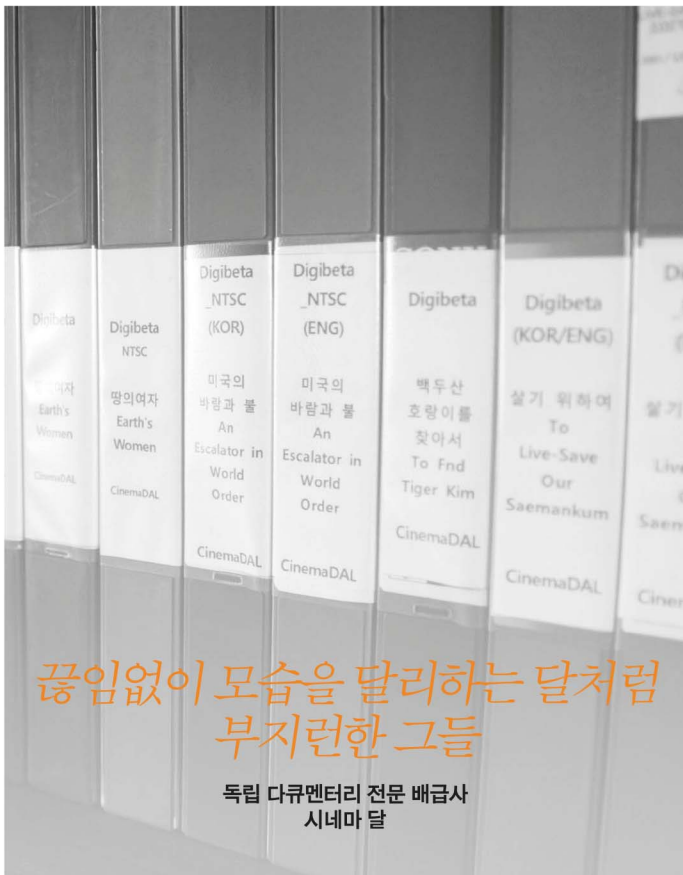
**조계영:** 나도 살짝 지저저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님은 한계점, 그러니까 회고조에 오르신 것 같아도 걱정이다. 이런 건쯤으로 나온다. 스토리세를 잘 쓰야 되는데, 안배를 하는 게 어떤지? 근데 생각해 보니 호시절에 안배를 하신 것 같다. 인디스토리를 못 하는구나.

**나유나:**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비교하면, 대표님이 변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좋게 변한 것 같지는 않다.(웃음) 아나, 사람이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살피지 유가 없던 것 같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빨리리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 그 외의 것들이 뒷배와도 해야 되나. 다른 구성원들이 괴워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디스토리를 이끌어 가고 중심에 있는 건 대표님이나, 저지저저는 삶을 사셨으면 한다.

**이제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한 말씀.**

**곽홍수:** 이런 격정을 하고 있는 줄 몰랐다. 회사가 좀 덜 일하는 상황이나 온연에게 내게 그런 압박이 남았던 것 같다. 일은 끝났지만 계속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하지 않도록 봐줘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랬든, 돈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힘들어도 그들이 본인들에게 재미 있는 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최재 이도훈 | 사진 김수연



## 끊임없이 모습을 달리하는 달처럼 부지런한 그들

독립 다큐멘터리 전문 배급사  
시네마 달

2008년 여름, 독립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배급하는 곳이 등장했다. 반기문 소식이기도 했지만 주위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당장 독립영화를 상영할 공간도, 독립 다큐멘터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등장은 조금 무모해 보이기도 했다. 박정숙 감독의 <동백 아가씨>를 시작으로 무던히 고고도덕 걸어왔다. 2010년 대한민국의 저화상을 드러낸 <경계도시 2>(홍하숙), 2011년 기록 같은 귀머거리 스토리를 담은 <종로의 기억>(이희상), 2012년 용산참사의 진실을 일러며 많은 사랑을 들끓게 만들었던 <두 개의 문>(김일환, 홍지유), 2013년 지을 스님의 내성천 이야기 <모래가 흐르는 강>,  
그리고 2014년 삼삼반도세 문제를 파헤친 <탐욕의 제국>(홍리경까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더욱 단단하고 뜨거워졌다. <탐욕의 제국> 개봉 1주차, 배급사 시네마 달의 분주한 사무실을 방문했다.

리자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지기스개부터 하자.

**오보라:** 기획팀장으로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다. 입사한 지는 이제 4년 정도? (탐욕의 제국)은 배급팀의 안보영 PD님이 배급위원단을 꾸려서 배급총괄을 맡고 있다. 전반적인 홍보는 나와 기획팀 해림, 그 외에 개봉할 때 배급 관련한 극장 연락, 단체관람 조적 등은 배급팀의 혜미, 혜진, 하늘 씨가 나누어서 한다.

**김혜미:** 배급팀에서 해외배급을 전담하고 있다. 원래 영화제랑 공동제작성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개봉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주로 하는 업무는 해외 영화제 출품, 지난해부터는 해외영화제에 초청되어 필름마켓에도 참가하고 있다.

**김혜미:** 기획팀에서 홍보마케팅을 맡고 있다. 1월 중순에 입사해서 이제 2개월? 원래 영화제와 상업 영화 홍보사에서 일을 하다 그만두고 영화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때 시네마 달이 익숙해졌고 그 계 계기가 돼서 입사까지 이어진 것 같다. 주위에 시네마 달 김일환 대표님이 무심하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입사 전에 인터뷰에 참석해 봤 했다. (일동 웃음) 근데 맞았는 것도 많아서 사주하고 좋은 분이 다. (웃음)

**김혜미:** 국내배급을 맡고 있고, 작년 11월에 입사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로 일하던 중 김일환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했고, 이 번 <탐욕의 제국>이 첫 개봉작이다. 배급 업무는 처음이라 프로세스에 대해 알기가 하는 중이다.  
**박하늘:** 문화산업을 전공했는데 배운 것에 비해 현장에서 어떤 이해도 부족했다. 그때 마침 시네마 달

배급팀에 들어오게 됐고, 지금 공동제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동제작성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잘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요새는 학교나 협동조합, 단체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기업의 간판도 유심히 보게 된다. 공동제작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영을 알리고 확장하는 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경계도시 2), <두 개의 문>, <탐욕의 제국> 등 다수 정식적인 소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많다. 배급작은 어떻게 잡하나?

**안보영:** 이전에는 김일환 대표가 주로 배급작을 결정했는데 그러다 보니 갑자기 그 작품의 배급에 대한 고민을 자유롭게 함께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가능한 다 같이 영화를 보고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작품의 정수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니 일단 내서서 영화를 바라보는 시간과 더불어 이 작품을 공동제작에 연계할 것인지, 기획전이나 포럼 등 학술적 차원에서 소개할지, 그 특성들도 고려하고, 개봉작은 관객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지 본다. 과거에는 배급작 결정에 대해 난상토론으로 편안하게 진행했던편, 요즘은 영화의 배급 전략이 세워지거나, 우리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품들을 충분히 고민한 뒤에 최종 결정한다. 최근엔 단편 극영화나 장편 극영화 배급 의뢰도 들어오고 있다.

시네마 달은 두어 달에 1편 정도로 배급이 적은 대신 영화제와의 집중도가 높은 것 같다. 감독과 의 대화(GV)도 많이 진행하고, 대화 주제 따라 모더레이터(진행자)도 섭외하고.

**오보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 사실 다큐멘터리다 보니 이슈나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영화의 분위기나 소재만큼 관객들이 극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더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북로그 SNS로 이야기가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감독과의 대화도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색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행사나 주제를 같이 릴레이로 하게끔 기획한다. 모더레이터나 게스트 섭외가 힘들 것 같다.

**오보라:** 영화를 보여 드리고 심의를 진행하는데, 사실 힘들다. (웃음) 소개가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또, 막상 명사를 초대했는데 빈자리가 많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다. 그런 부분에 항상 긴장하다 보니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면 갑자기 피로와 함께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다. GV가 없는 날에는 너무 일찍 귀가하면 될 때까지 모르겠다. 일동웃음. (웃음)  
공동제작성 기획은 시네마 달의 강점이기도 하다. 단체나 조직에 굳이 입지가 개방할 때 방식은 모든 조건에 이이지는 것 같음.

**오보라:** 상황에 따라 다른데 <탐욕의 제국>은 상상이라는 영화한 이슈가 있어 관련된 단체들과 관계를 맺어 배급위원단이 꾸려져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일이 관련된 학과, 시민단체



김일권 대표



민보영 PD



오보라 기획팀장



김혜림(배우배급)



김혜림(기획)



김혜림(주배급)



박하림(공동제작)

에 먼저 연락을 해서 기획한다. (경계도시)부터 유명인사 섭외, 조직과 이슈를 연결했고 거기서 더 관을 키운 게 (두 개의 분)이다. 그때부터 시민단체와 배급지원단이 무리져서 공동의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혜림:** 전에 상영영화를 하다 왔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다. 확실하게 함께 참여한다 다뤄졌다. 물론 개봉도 부족하지만, 개봉을 통해 어떤 걸 이뤄 나가고 싶은 게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사내에 달은 배급운동의 느낌이 있다.

**민보영:**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제작할 땐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직접하지 않는다. 일단 일

만나 영화를 잘 만들지도 관건이지만, 극영화와 달리 실제 싸우는 현장에서 이 사람을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배급을 할 때 어떻게 관례를 만날까도 고민이지만, 현실화 다큐멘터리 시장에서 이 영화와 더불어 지금 싸우고 있는 현장, 사안을 의미 있는 담론으로 만드는 게 시네마 달의 책임인 것 같다. 특히 외부에서 시네마 달을 배급사와 활동단체 사이에서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배급사다. (웃음) 다만 감독들이 직접 비디오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형태에서 전문적, 체계적으로 배급을 하기 위해 시네마 달이 만들어진 만큼 따르고 있는 영화, 관계를 맺고 일을 함께하는 감독들의 성격과 따라가는 것 같다.

과거에는 극장에서 다큐멘터리를 개봉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상에서 기암이 없는 행위였다. 물론 《순환》, 《위남》 등 예외적인 작품이 있지만, 지금은 점점 시장이 커지고 관객 인식도 점차 나가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전문 배급사가 생기기만 어느 정도 열망은 준 것 같다.

**민보영:** 시네마 달이 저조한 스퀘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봉 작업을 하며 다큐멘터리에 극장에 개봉할 수 있는 콘넵트라고 인지를 시키는 데 노력을 했지만, 우리는 안정적인 콘넵트를 제공했음 뿐이다. 인디스페이스 같은 독립 영화관이 생기면서 일어난 극장운동, 상영운동들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예민한 질문이지만 재정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나?**

**오보라:** 대부분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개봉지원을 받고, (그리고 싶은 곳)이나 (탐욕의 제국) 같은 작품들은 소실린딩을 통해 개봉 비용을 마련한다. 소실린딩 진행도

힘든 작품들은 배급사에서 감당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마케팅 비용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개봉지원금이 최대 3천만 원인데, 사실 그 정도는 있어야 배급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두 개의 분)도 개봉지원금에 소실린딩을 통해 모인 금액으로 후반 제작과 개봉 진행을 했다.

시네마 달은 배급사이기도 하지만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과 극영화 제작도 동시에 하고 있고 있다.

**민보영:** 김일권 대표가 전부 제작을 꾸민지 배웠다. 나 역시 처음엔 제작 프로듀서로 들어왔고, 그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극영화로 (아직비행) (이승희원), 다큐는 (순기로운 해피) (태준사과) (장호의 여행) (가브리엘 로망)을 제작했다. (잡식동물의 딜레마) (황윤) 같은 경우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같이 들어갔고, 개봉한 작품 중에는 (폼페이) (남다정나) (오래가 흐르는 강) (시울 스님), (백야자난 여름 가지가 나뉘도록 간다) (이승희원) (이하 (백,지,남))도 있다.

**<백,지,남>의 경우는 배급도 직접 했다. 다큐멘터리의 배급 계획이 다른가?**

**오보라:** 극영화 배급은 (백,지,남)이 처음이었다. 다큐멘터리가 이슈를 집중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극영화는 이슈도 있어야 하고, 감독의 지명도도 있고, 결정적으로 배우가 있다는 게 다르다. (웃음) 다큐멘터리는 상영의 조직에 더 많은 힘을 쏟는다면, 극영화는 예고편이나 포스터에서 보이는 감각적이고 매력한 포장에 조금 더 힘을 쏟게 되더라. 또 하나 다른 건 배우와 랜관리(웃음) 약 두 달 정도 엔터테인먼트 수준으로 하다가 보니 힘들었지만 또 색다른 경험이었다. 아직까지 극영화 배급 계획은 없지만 좋은 작품과 인원이 맞으면 계속 배급할 의지는 있다.

**해외배급도 언급했다. 최근에 베를린국제영화제 해외마켓도 다녀왔고 들었다.**

**김혜림:** 작년 베를린영화제에 (백,지,남)이 초청되면서 해외 필름마켓에 처음 가게 되었다. 시네마 달 자체에서도 이해적인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도 행운이었다. 올해는 세계 3대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전부 가게 될 것 같다. 막상 해외 영화제가 가면 한국 다큐멘터리에 대한 인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데 저거까지 그라티를 이어 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꼭 내가 아니어도 그런 역할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해외배급 피드는 흔치 않고 있는데 필름지 관심은?**

**김혜림:** 해외 분야에 대해 내부에서 조안을 구할 수 없고 A부터 Z까지 논의해야 하는 부분들은 힘들지만 오히려 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또 비행기를 타니까(웃음) 지금까지 제였는데 앞으로도 제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웃음)

**시네마 달은 배급 외에 제일 할 일이 뭐일까요.(웃음)**

**민보영:** 모든 배급사들이 사정은 비슷하겠지만, 복근 수당도 없고, (웃음) 사실 작품이 개봉하면 주변에 주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다. 다만 김일권 대표의 원칙이 있다면, 급여가 밀리지 않는 것과는 다른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 잘 알아야 한다는 것 사실 그런 부분들이 김일권 대표에 대한 믿음과 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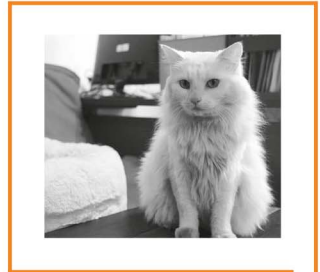
는 것 같다. (웃음)

**김혜림:** 시네마 달에서는 “그냥 밥먹을 시키면 혼난다. 대표님이 다음부터는 삼선밥쯤 시켜”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냥 밥먹이 먹고 싶어 시켰는데…… (웃음)

**배급사의 YG엔터(일동 웃음) (탐욕의 제국) 이후 개봉 바람인데 궁금하다.**

**오보라:** 5월 초에 《순기로운 해피》에 이어, 6월에 《후쿠시마의 미래》 (이종기), 《구름비바람이 분다》 (조성봉), 《기미의 땅》 (김동명, 박경태), 《망원동 인공수목》 (김형주까지 올해 라인업에 예정되어 있다.

취재 박찬희(김지민) 1 사진 김지민



### 시네마 달 마스코트 달분이

인타쿠 내내 밥만을 왔다 갔다 하거나 꼴만 잔인 너석 이 있었다. 사무실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손님을 반겨 주는 너석, 고소한 자태로 느닷없이 걸음은 그녀는 바로 달분이. 달분이는 뽀얀 털에 가늘 발린래는 하얀색으로 주황을 가진 시네마 달의 동거묘(猫)이다. 지금의 사무실로 이사 오기 전 지하실에 버려진 고양이 데라와 카쿠자던 김일권 대표의 제안으로 함께 살고 있고, 현재 시네마 달 사설 1위, 끝 달분이의 친구도 생길 예정이라고, 두 손으로 사료를 먹이, 털을 고르게 빗겨 주며 단말서하고 있는 김일권 대표에게 달분이에 대해 물었더니 돌아온 한마디. “달분이는 내 운명.”



## 독립영화에 플래그를 달아 더 넓은 세상에 꽃다

디지털 배급, 영화 온라인 홍보마케팅, 독립영화 전문 다운로드 사이트  
인디플러그

서울 수유동 북한산 부근에 위치한 인디플러그 사무실은 흰관 알까치 길고양이가 서슴없이 출몰하고, 근처의 반천기계에서 반천을 가져다 직접 밥을 지어 먹는 단독주택이다.

사람들은 “너무 외무에 있는 것 아닌가”, “산 아래 있어서 공기가 좋겠다” 하지만 막심 고박교박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입장에선 그런 말들이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쿨리한 지하층을 거쳐 아늑한 사무실에 도착한 우리들엔 연신 풍류거리며 산 공기를 들이마시기 바빴다. 탁자에 놓인 커피들 인디플러그와 차근차근 시간을 함께한 영화계 기념 머그잔. 잔 표면에 새겨진 연식을 보니 새삼 인디플러그가 꽤 시간 달려왔다는 것이 실감난다. 2009년, 4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이제 식구도 7명으로 늘었다.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꼭 인디플러그를 지키고 있는 김지희 본부장에게 인디플러그의 시작에 대해 물었다. 회사 이름인 ‘인디플러그’는 창립 멤버들끼리 마주앉아 대화를 주고받으며 바로 정했다고 한다. “(위남소리) 됐으니까 네 글자로 하자.” 요즘은 다섯 글자도 잘나가지. “그때도 김정희 대표에게서 인디플러그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디든 가시 플러그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자 는 뜻. 후발 주자인 인디플러그와 토쳐 하나 다른 이름 때문에 계열사나 사업 화장을 한 것이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디라는 단어가 중요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잘 지었다고는 생각이 든단다.

###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내딛은 첫발

2009년 7월, 인디플러그가 처음 지리 좁았던 공덕동 사무실을 행개책 확장한 들어오는 모양새 때문에 대해 필 하는 곳인지 알아챈 수가 없어 “우리 대부업제 같아.” 하는 농담을 나눌 정도였다. 하지만 그 회사가 벌써 5년을 왔고, 이제 인디플러그는 확실하게 지리 좁은 독립영화 온라인 배급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위남소리) 이후 고영재 대표가 디지털 배급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웹하드나 씨네마라이에서 제휴를 통해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정도인데 온라인상에서 영화가 유통되는 방법이었고. 그때 고 대표가 생각한 게 독립영화와 오리지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 아무래도 상업영화보다 많은 시장력을 가지는 게 어려우니 온라인상의 부가서비스인 영화를 며칠 수 있으리라는 거였고. 지

금은 강원도에 계시는 최영준 배우이사와 저는 원래 정보통신 쪽 일을 했고, 대안미디어에 대한 논의와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에 수도 없이 올라오는 대안미디어 영상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중과 접촉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고영재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온라인 배급을 하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자나 최영준 이사는 영화 배급에 대해선 전혀 몰랐기 때문에. 고영재 대표와 김정희 대표가 전문가로 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리서치도 많이 했죠. 우리 가 초창기 MCP화사라고 할 수 있는데, 창립 당시 에 온라인 영화 플랫폼에 대해 티스토리에도 많이 이야기를 나왔어요. KT에서 극장 동시개봉을 최초로 시도한 것도 우리 작품 (나는 나비)고요.”

### 독립영화 배급사들과의 만남

2009년 9월, 독립영화 전문 배급사 인디스토리, 시네마 달, 키노이와 MOU를 체결하여 지금까지도 그 끈을 이어 오고 있는 인디플러그. 그 첫 단추는 어찌했을까.

“인디스토리, 시네마 달, 핫나인, 키노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조사한 현황과 사업 계획 등을 브리핑했어. 배급사들 중에는 다른 업체에 유통 서비스를 맡긴 곳도 있었고, 기존 작품들을 묵혀 둔 곳들도 있었어요. 당시엔 최신 개봉작들만 담예와 계약되어 있는 정도였고 장편 중에서도 극장 개봉을 하지 않은 작품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 래서 콘텐츠는 수급하는 것 자체엔 큰 문제가 없었어. 타 업체와 계약된 작품들은 계약 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렸고요. 배급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장점을 준비하는 회사라 작품들을 인쇄부터 시비

스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거나 기존에 디지털 배급을 해보지 않은 신생 회사에게 작품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적어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데도 맡겨 준 것인데, 그게 감사했죠. 그들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준 덕분에 독립영화 온라인 배급사라는 특별한 정체성이 부여될 수 있었어요.”

### 새로운 시장에 독립영화의 가치들 세우다

“아무래도 인디플러그가 독립영화의 온라인 유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은 있죠. 초창기에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유통’이었어.” 당시는 독립영화 뿐 아니라 모든 영화를 웹하드에서 무료로 기가깝게 다운로드 받다는 게 당연한 태도처럼 여겨졌을 때, 인디플러그가 온라인에서 유료로 영화를 배급한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홍보를 들을 테니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해 달라”는 업체들도 있었다고 한다.

“독립영화를 유료로 정량하게 다운로드 감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제작사에 수익이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새로운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우리 또한 그 영화를 다시 배급할 수 있을 테니 항상 제작사에게 적절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VOD 가격이 시간이 흐름에 따



회관신 지역 인디플러그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는 화분들. 고양이 한 마리가 유유히 다닐고 있다.

라 유동적으로 변하는데, 우리는 딱 작가를 정할 때였어요. 대표로써 제작자 출신이나 보니 얼마나 오래된 영화 인지가 아니라 HD와 SD로 가격을 구분했죠. (웃음) 영화 값을 절대 내리지 않았고요. 타 업체에서 가격이 크게 내려간 작품이 우리 정할까 다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기도 했어요. VOD 가격을 낮추는 게 영화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경기를 유지하는 데 신중을 썼던 거예요. 지금은 딱 한 번 가격이 떨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3500원으로 시작해서 6개월 후에 2000원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 가격 제도를 만드는 게 타 업체에는 없던 원칙이었죠. 배급사들로부터 가격 문제를 두고 많이 소통했어요.”

### 2010년 3월, 다운로드 사이트 오픈

“다운로드 사이트를 열고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사이트 운영이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일이나 운영 전 고민을 많이 했죠. 초창기에는 독립영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소화하는 사이트로 만들고자 해서 교육 필진도 있었고, 시네마 달의 (야생의 가솔)이 상당히 잘됐던 기억이 나요. (배제의 왕) 때 언왕호 감독 제작기도 공개했었고요. (이웃집 좀비) 옥담방 방문 이벤트 같은 걸 진행해서 결국 직원들과 친구, 친구의 친구, 아는 사람들로만 꾸러진 팀이 옥담방 방문하고 (웃음)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시도해 보려는 의욕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지도 팀장이 사이트를 잘 키워 놓아서 이벤트도 아주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한 다량한 콘텐츠들을 제공하러 노력 중이에요.”

### 점점 살아나고 있는 디지털 시장

카메라가 얼골 앞으로 들어밀어지자 시선을 휘 돌리며 사진 찍는 것이 영이색하고 불편하며 다미 고개를 갖는 박찬준 팀장. 그러다가도 인디플러그 서비스의 프로세서나 배급 시스템, 수직과 실적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금세 이야기를 전하는 데 집중한다. 3년을 딱 채워 일하면서 설명으로 알게 된 것들보다 회사 안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더 많이 쌓였다. “부가관련한 말은 많이 쓰고 있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비디오 시장이 있었고 DVD 시장은 잠깐 번창하고 지나간 정도였어요. 당시 부가관련하고 하도면 비디오, 공중파 TV, 케이블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배급할 루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IPTV, 위성채널, 모바일, PC, 가시통신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도 또 쪼개지고, 공동체상영도 있었고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리고 그만큼 이쪽 분야를 담당하는 회사들,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도면 플랫폼들을 일일이 다 훑어서 온라인 판권을 가지고 유통 대행을 하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엔 부가사업이 없어졌었어요. 인터넷이 걸리면서 사람들 사고가 뒤편에서, 예전에 2천 원의 내고 비디오를 빌려 보던 그 돈도 아껴줘야 된 거죠. 지금도 플랫폼 다운로드 대행을 위한 모임을 갖고 여러 분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플랫폼만 게 경영의 없애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플랫폼을 뿌리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디 권리까지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기자 하고,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극장에서 3, 부가에서 7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2013년 디지털 시장이 영화 시장의 14% 정도였고, 디지털 시장의 65~70%가 IPTV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20~30%로 늘러 가겠죠. 꾸준히 오르르고는 있어요.”

이쯤 되니 작품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졌다. “평창이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처음 설립 목적이 독립 배급사들이 연합해서 같이 온라인 배급을 하기로 했던 거라, 지금도 시네마 달, 인디스토리, 어뮤즈, 상상마당과 함께하고 있어요. 거기에 부자, 제작 과정에 시 권권을 갖게 되는 경우, 개인적으로 작품을 들고 찾아가는 경우, 영화제에서 작품을 팔면 전하는 경우 등 세 작품들과 접촉할 루트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회의록 해서 작품을 선별해요. 사실 점점 판권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수익이 될 만한 영화 중 80%는 큰 곳에서 가져가거나 나머지 10~20%의 작품을 수급 회사들과 전장을 처리하게 되고요. 또 부가사업에서 잘되는 영화가 있어요. 19명 있잖나 장도영, 배우 인지도가 높은 영화들이 잘되는데,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 '대박'이 나는 거죠.



요즘은 부가용 프로그램 따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가는 포스터가 중요하거든요.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구요.”

### 다운로드 사이트로 관객과의 소통을 꿈꾼다

이지도 팀장의 바람은 인디플러그가 영화, 나아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재미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삼정동'이 갤러리, 영화로 지 영화화하면 한편 직업 오후를 보려는 것처럼, 인디플러그도 또한 그런 '직' 하면 친인척이 되었던 배를 쓴 것이다. 저금 인디플러그는 독립영화 다운로드 사이트로서의 정체성이 크지만,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허브가 되었으면 하는 초기의 바람도 여전히 중요하죠.

“2011년 5월 개편을 통해 본격적으로 '독립영화 전문 다운로드 사이트 인디플러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됐어요. 다운로드 서비스에 집중을 하다 부가 매출도 오르고 영화 다운로드 페이지 방문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그게 매출이 잘 나오는 건 랜덤인데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평행 느낌이 드는 게 싫었어요. 그때 회원들을 활용해서 인디플러그가 살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회원들이 저보다 독립영화에 대해 더 잘 알았다는 생각이 오프라인으로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다들 할 말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독립영화를 같이 볼 친구들이 없어요. 독립영화에 대해 같이 이야기할 친구들이 혼자서 읽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끄집어내서 사이트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40 지평이나 리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이벤트 같은 것도 40지평 댓글을 달아서 사용자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랬듯이 그대로 영화의 40지평으로 활용이 되게끔 인문서적 쪽, 영화도 회원들이 더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장도영, 정도영, 배운 시드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1. 김지희 미디어아트연구소 부장인디플러그가 창립 멤버. 대안미디어의 가능성을 향한 인디플러그의 최후는 화제가 됐어요. 고영재 대표, 김정식 대표, 최영은 재무이사한테 회사와 함께 사업을 열거했어요.

2. 박찬준 디지털배급팀 팀장 영화를 전공한 사내어 키드기 출신 후 독립영화 온라인 배급의 세계로 갔다. 영화학에 대한 관심에도 역시 많은 변화가 생겼다.

3. 이지도 콘텐츠서비스팀 팀장 영화를 전공하던 대학생이 독립영화라는 분야에 들어와 인디플러그의 문을 두드렸고, 입사지원서를 내던 그때 그걸까 마음을 두드리는 영화가 이미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지름을 주위에 인디스토리나 나를 이 가는 회사에서 퇴직했죠 모른다.



인디플러그가 극장 배급을 생계하면서 이지도 팀장의 임무는 배가 됐다. 사이트 운영은 물론 극장 배급에 따른 홍보 마케팅까지 맡게 됐으나 눈의 할 일들을 해쳐주어 배급도 다 바람만 했다.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한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별 일호와 일록스) 극장 배급 때 홍보 마케팅을 했는데, 저금 생각하면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홍보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언론 진행도 배우를 더 잘 활용해 볼 것, 탈 인연을 개편한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비용을 나눠 줄게요. 이런 루트가 있으면, 홍보 마케팅 쪽의 아이디어를 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배급사들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을 상반기 종료 극장에서 (순산), (클럽)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는 계획을 듣는 것을 마지막으로 인티뷰는 끝이 났다. 금정엔 이야기를 한가득 들었는데도 성실한 인터뷰 이들은 '대표들이 인터뷰를 했으면 내가 더 많았을 텐데, 라미 아쉬워한다. 대표들은 이야기하기가 한 보미의 한 차 있으니 하루를 꼬박 짜야 인티뷰를 마칠 수 있을 거란다. 긴 인터뷰 직후에도 그 말을 듣고 후회를 정도로, 인디플러그는 참 좋고 싶은 얘기가 많은 곳이다.

이희 김윤오(오른쪽) | 사진 김수민



즐거움으로  
시작한 어뮤즈,  
6년의 회로애락  
일차고 진심 어린 영화 배급사  
어뮤즈

인디스토리, 시네마 달, 인디플러스와 더불어 독립영화 배급에서 배놓을 수 없는 이름 어뮤즈. 작지만 알찬 영화 배급하자는 모토로 시작한 회사 로고엔 웃음이 새겨져 있다. 회사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티백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젊다. 왜이렇게 독립영 화판매 출시료를 단정던 회사는 어느새 6년 차를 맞이하는데, 부 족짓 도란반 이미지의 박승근 대표 얼굴에도 그만큼의 다양한 표 정이 새겨지지 않았을까?

어뮤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2009년 3월 16일 사업자등록을 냈다. 회사 시작은 졸업과 동시에 졸업하면서 당시 집안 사정상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영화를 그만 뒤야 하나 고민했는데,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이에 회사 를 차리자 맘먹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방법이 열리지 않을까라 는 막연함과 함께, 배급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다만 학교에서 만 들었던 영화가 단편이었던 것이 출발이 됐다. 단편 배급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작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근대 교로의 작품무 터 수급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자칫 그 안에 갇힐 수 있 으니까, 그래서 영화제를 돌아다녔다. 그해 4월 열리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가 첫 번째였다.

초기엔 어려움도 많았겠네요.

그때 내 통장에 딱 2만 원이 있었대. 당시 알고 지냈던 분이 상도 등에 쪽방을 내주었는데, 거기서 책상 하나 노트북 하나를 출발했 다. 운 좋게 사무실을 이전할 때마다 배당 도울을 받았다. 두 번째 사무실은 대학로 소극장 건물에 있었는데, 낯에는 우리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연 진행을 도왔다. 세 번째 충무로 사무실은 한국영화 교육원에 계셨던 감독님의 소개로, 학교 작품을 배급하는 역할을 하며 공간을 제공받았다.

서울독립영화제 출품 때 회사를 맡게 되었는데, 신생 배급사의 예니 지가 느껴졌나.

모르던 용감하다고 그때는 물론표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냥 배 보 자. 해 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 운 좋게 사무실 친구들도 미 슿한 생각이었다. 뭔가 회사가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런 것들 이 지금도 우리 회사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론 우리가 상대 적으로 이리기에 때문에 좀 더 오픈 마인드로 봐주시는 것 같기도 하 다. 이것도 안 놓을 일이 되지 않나.(웃음)

배급의 선정 기준은?

흔차 할 때 내 취향에 맞는 작품을 골랐는데, 친구들이 생기면서 이 건이 생겼다. 기준에 대해 고민했는데, 초반에는 제권표를 만들어

서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근대 웃겼다. 그래서 느낌을 믿고 선택하기도 했다. 단편의 경우는 나와 친구들 모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결국 작품을 골 고 갈 배급팀의 만족도가 중요하다. 이 일엔 애정만 필요하진아.

기존 배급사들과의 차별의 장점이 필요했겠 것 같다.

초반에 배급 선배들을 찾아뵈고 인스타그램이나 아싸나 고민을 했는데 그렇 게는 안됐다. 내에 대한 확신도 필요했고, 결과 없이 외지 표방만 하는 것도 아 닌 듯했다. 경험을 쌓고 만나자 생각했고, 2009년 후반에 처음 인스타였다. 선 배들과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해도 업무적인 것을 고스란히 배급 수는 없었다. 우린 시작하는 회사이니,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 차별화라고 여겼다. 단편 배급에는 스크린에 걸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개별 작품에 맞는 영 화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강된 배급에선 좀 더 다른 지점이 있었을 텐데, 조 창기엔 같이 없으니 마구 부딪혔다. 캐드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단체관람을 많 이 시도했었던 것도 그런 측면인데, 어떤 작품은 단체관람으로 3천 원의 티켓 을 팔기도 했다.

첫 번째 제작영화 <코알라>에 대해 들어 보자.

어뮤즈가 만약 제작을 하게 된다면, 첫 작품은 우리 단편 감독의 데뷔작으로 라 고 싶었다. 근대 우연찮게 사나리움을 받았고 감독을 만났다.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는 간단했다. 내 얘기 같았기 때문이다. 주변에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고 충분히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고 있었다. 가차고 결정하고 나서는 앞뒤 안 보고 담았다. 제작 과정에서 투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 는데, 그때 잠깐 고민을 했다. 중간에 제작을 멈췄던 영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게 죄를 짓는 일이 됐을 거다. 할계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진 했지만, <코알 라>에는 시차도, 워기도 모두 있다. 그리고 열린 결말. 이 작품을 통해와 함께 이들에게 참 고맙다. 이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 느낌이다.

<츄주는 숲> 마케팅에도 참여했는데.

많이 배웠다. 선배들한테 늘 앓을 매길 수 없는 도움을 받았다. 어뮤즈는 사실 다큐멘터리 배급을 두루뤼했다. 만약 <두 개의 문> 배급 의뢰가 왔다면 선뜻 말 을 수 있었을까? 나에게 그런 질문이 있을꺼라는 의문. <츄주는 숲>은 사람 사 는 얘기와 이슈가 아울러 있는 작품이었고, 이 작품을 하면서 일종의 트라우마 에도 전향하고 싶었다.

배급 6년 차를 맞는 어뮤즈의 색깔은?

사실 작품들의 공통분모가 작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색깔이 만들어지고 있 는 것 같다. 배급작중 <미스션은 예쁘다>, <해바는 감정>, 그리고 곧 배급할 <프랑 스산 김밥살> 등이 우리가 만들어 가는 색깔이 아닐까?

한때 독립영화인 아무런도 열심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내 개인 생활이 없어서 속상하다. 운동도 못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한다. 야 구는 같이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편하게 선배들과 만나 속내를 들을 수 있고, 내게 힘이 된다.

취재 김동현 | 사진 김지은

## 다양한 독립영화 배급사들

이번에 만난 배급사를 외에도 독립영화를 관객들과 만 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배급사들이 있다. <환 상속의 그대>, <경복>, <러시안 소살>, <마이 플레이 스> 등을 개봉했고, <서울백>을 준비 중인 KT&GS상 사 미팅도 그중 하나다. <우리학교>를 비롯해 다큐멘터리 배급/마케팅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온 영화사 진진도 배급을 수 있다. 진진의 올해 라인업에는 <눈썹 선데이 어리>가 포함되어 있다. 영화학교 및 영화회의 자체적 인 노력도 눈에 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와 한국예술총 합학교 영상실은 학생들의 작품을 꾸준히 배급하고 있 고, 중앙대의 샌드박스, 한양대의 달리기, 성결대의 길조사 등도 자체 배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독립영화배급사네트워크

2007년 독립영화 진영과 인디스페이스가 개교하여 독 립영화 배급 환경이 변한 후, 2009년부터 독립영화 배급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장 진입 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인디스토리, 시네마 달, 인디플 러그, 어뮤즈, 미운틴픽처스, KT&GS상사영, 영화사 진진(참고인 자력으로 이루어진 독립영화배급사네트 워크는 각 배급사의 개별 라인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 고 개봉 시기를 조정하며, 독립영화 배급과 관련된 현 안을 논의하고 문제 제기를 해 왔다. 개별 독립영화기 대쪽 놓이던 현재는 활동이 주축해선 심해.

## 독립영화인 아무런 인디즈

2011년 창립된 독립영화인 아무런 인디즈. 인디플루 그 김정식 대표와 조은성 PD의 개인으로 아무를 좋아 하는 독립영화인들이 모였다. 미운틴픽처스 이재식 대 표가 구단주. 인디스토리 권용수 대표가 감독을 맡 아 매달 2번씩 걸기를 치르고 있다. 어뮤즈 박승근 대 표, 서울독립영화제 조영자 집행위원장, 그린피리커처 스 이현영 대표, 배우 정형진 등이 선수로 활약하고 있 으며, 현재까지 최고 성적은 2012년의 플레이오프 콘 출. 올해 역시 꼭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자신의 황학세 를 실컷하겠다는 한다.



# '유미씨와 함께 맞는 봄, 지금 여기!'에서 함께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과 <탐욕의 제국>



날씨가 풀리는 듯하다니 들던 메시온 바람이 불었다 3월 6일 오후, 늦게 솟은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강남 삼성 본관 앞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곳에서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고(故) 황유미 7주기 및 만도재-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기간의 마지막 행사인 만도재-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 문화제 유미씨와 함께 맞는 봄, 지금 여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른 시간부터 만도재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들이 방진복을 입고 삼성 문제를 담은 홍보물을 나눠 주고 있었고, 오고간 시민들은 얼마 전 영화에서 봤던 방진복을 실제로 입고 있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관심을 갖고 모이기 시작했다.

해가 저고 날이 어둑해지자 추모제의 시작을 알리는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가 삼성 본관 앞에서 울려 퍼졌고, 만도재-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합동문화제에 자발적인 분향 행렬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사자들과 가족들, 노동자들, 활동가들, 대학생들 등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고 황유미 씨의 어머니 박상옥 씨의 발언에 눈시울을 붉혔고, 가수 정필이 씨가 부르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사운드트랙 최상을 들으며 고인들을 떠올렸다. 또한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원 위원회 임원들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의 발언에 많은 힘을 얻었다. 이날 긴 건너편엔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하늘엔 삼성 직업가 세기진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삼성만도재 공방에서 일하다 직업병으로 숨진 노동자들을 기리고 삼성에게 책임을 묻는 데 대한민국의 경찰이 그 일을 지키고 있는 풍경.

이 자리에 함께해 준 또 다른 이들이 있다. 바로 영화 <또 하나의 약속>과 다큐멘터리 <탐욕의 제국>이다. 두 영화는 한국 사회에서의 삼성 문제를 가늠했다는 점에서 개봉 이전부터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고, 실제로 최근 삼성 문제에 대해 알게 된 이들은 대부분 이 두 영화를 통해서인 경우가 많다. 2월에 개봉한 <또 하나의 약속>은 현재까지 약 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탐욕의 제국>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독립다큐멘터리 최초로 2개관에서 시사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입소문을 타고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삼성 문제를 알리고 삼성을 바로잡는 운동의 한 축에서 영화들이 자리하고 있다.

김태환 감독의 <또 하나의 약속>은 고 황유미 씨의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극영화로 유미 씨의 아버지 장상기 씨가 삼성에 만도재 노동자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맞서 싸웠던 이야기를 담고 있고, 황리경 감독의 <탐욕의 제국>은 삼성만도재 공방에 근무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삼성만도재의 노동 환경 실태와 삼성의 연명공모를 보여 준다. 이 두 영화는 삼성을 다뤘다는 이유로 제작부터 개봉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다. 가령 <또 하나의 약속>은 예초에 300개 칸 개봉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한 자기 검열 때문에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상영관을 거의 내주지 않아 100여 곳만 되는 상영관에서 개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었다. <탐욕의 제국>도 마찬가지다. <탐욕의 제국>에 상을 수여했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삼성전자로부터 지원금이 끊겼고, CGV 왕십리에서 열릴 예정던 시사회는 며칠을 앞두고 극장 측이 시사회 대관을 불허해 급히 장소를 옮긴 수밖에 없었다. 두 영화는 이런 고난과 싸우며 세상의 빛을 봤다.



이 두 편의 영화가 가진 미덕은 삼성 신화에 대해 과감하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 신화 이면에 있는 삼성 내부 구조의 문제, 삼성의 정경유착 문제, 삼성 노동자들의 문제 등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이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하다>, 그리고 노화련 전 원외이 폭로한 삼성파일 등 삼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론화하는 시도와,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단체 연애틀 결정, 에버랜드 노동자들이 만든 삼성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원 노동조합, 삼성노동인권지원회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등 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연장이 <또 하나의 약속>과 <탐욕의 제국>이다. 이제 삼성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삼성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담론들이 점점 더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고, 이에 대중들도 공감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기업 권력이 우리 삶에 가하고 있는 폭력 전반에 대한 문제다. 몇 년의 영화가 혁명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영화의 모험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바로 이이 두 편의 영화가 가진 힘이다. 지금부터 삼성을 바꾸기 위한 이야기가 더 많이 시작해 보자.

최재희 기자 사진 제공

독립다큐멘터리 정기상영회 '인디다큐 시간여행' (당신과 나의 전쟁) 2014. 3. 13 at 한국영상자료원

## 산자와 죽은 자, 생사의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



독립다큐멘터리 정기상영회 '인디다큐 시간여행'은 인디다큐페스티벌이 2012년 6월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읽어 볼 만한 작품을 선정하여 상영해 왔다. 2014년부터는 수주제를 정해 주제별로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과 관련된 더욱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한다. 첫 번째 수주제 [프롤로그 : 과거는 낯선 나라다?] 후일담? 아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에 이어, 3월부터 5월까지 이어질 두 번째 수주제는 [노동다큐의 흐름]이다. 이번이 주제는 [여성과 [재개발]에 매몰되어 있다] 그 첫 작품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담은 태준식 감독의 <당신과 나의 전쟁>, 다큐멘터리 연구자 권은혜 씨의 진행으로 한 시간 넘게 이어진 열띤 대화의 현장 을 다시 증명한다.

권은혜: 지난 2월 7일 서울고법판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상황인데, 시국에서는 바로 심고장을 제출했 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태준식: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 후에 무급휴직자, 정계해고자, 정리해고자가 있었어요.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드러난 특징 중 하나는, 자본의 갈라치기라고 해야 하나요, 정리해고 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한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관철했다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벌어지면서 희망퇴직하신 분도 많았고, 총 2009명 넘는 분들이 공장을 떠나게 됐죠. 해고자들, 퇴직자들, 무직자들, 그 가족들을 통틀어 24분이나 자살 혹은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죽음을 통한 거인 하지만 사회적 어분이 생겨 서 무급휴직자들이 차년에도 복직했고, 원래는 1년 후 바로 복직했어야 하는데, 3년 넘게 시간이 걸렸어요. <당신과 나의 전쟁>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신동기 씨 같은 정계해고자들 50만 명은 법적인 싸움에서 승소해서 복직이 됐고, 현재는 정리해고자 150만 정도만 공장 밖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정리해고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건 했지만, 자본들이 더 절친 것 같아요. 상고도 했으나 대법원까지 가게 됐죠.

권은혜: 해고자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았던 분들을 '산 자'라고 부르는데도, 신동기 씨는 이른바 '산 자'였는데 투쟁에 가담해서 정계해고를 당하시는 거고, 인터뷰이 중 한 명인 김선동 씨는 애초에 해고자 명단에 있었던 분이고요.

태준식: 네, 죽은 자였죠. 작업하면서 그 단어들에 참 낯설었는데, '산 자'와 '죽은 자'라고 노동자 스스로 명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90년대 말부터 노동자류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봐 왔던 노동운동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살감, 단결하면 소란하다는 공격이 강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 내부에서 스스로 산자와 죽은 자라 부르더라고요. 김선동 씨는 죽은 자였고 77일간 파업투쟁을 같이하셨던 본인인데, 2009년 8월에 싸움이 끝나고 노동조합이 중공분배된 상황에서 비대위를 꾸리고 첫 번째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때쯤 시작한 이 영화 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터뷰는 김선동 위원장님께 맡기게 됐죠.

권은혜: <당신과 나의 전쟁> 외에도 쌍용자동차 투쟁을 다룬 <너만과> <미안해요 함께 할게요>를 계속 만드셨는데요.

태준식: <당신과 나의 전쟁>을 참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지속적으로 호명되는 게, 노동자 분들이 들어가실 때마다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경험이었고, 마음의 빚이었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만>은 <당신과 나의 전쟁> DVD에 넣었고요. <미안해요 함께 할게요>는 처음에 심상정 의원실에서 국회 대정부 질의 때 쓰려고요 요청한 거였어요. <당신과 나의 전쟁>과 이어서 만들었던 작품들이 노동자와 시민이 만나는 연결고리써 기능을 하지 않았나 합니다.

권: 영화를 만들면서 혹시 외압을 받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준식: 제작비가 없어서 힘든 것은 있었어요. 특정 정치세력의 외압이 있지는 않았 습니다. 오히려 DVD를 만들고 난 후에 쌍용자동차에서 다른 이유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쌍용자동차가 그동안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만능이요. 니 저하는 제발 코소하라고 했죠. 쌍용노조 지부장에서 감독님 고소당요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부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소는 안 하더라고요. (웃음)

권은혜: 제목을 '우리라고 해도 땀만 당신과 나로 구분할 지요'였는데요.

태준식: 개인적으로 '우리'보다 이런 말을 쓸아하기도 하고, '우리나 단결'이라는 수식보다는 '나의 전쟁이기도 하고 당신의 전쟁이기도 하는' 것을 시도시키고 싶었어요.

권: 노사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태준식: 평화라는 것이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 건데, 지금은 힘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입장이고, 자연스럽게 평화로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가들이 돈으로 노조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평화라고 생각해요. 장권 자체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주고 있고, 노동자들이 야만적으로 당하고 있으니까요.

권: 파업으로 인해 국민이 있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태준식: 파업을 하면서 휴식 시간도 가지고 바깥세상으로 구경한 다면 그분들의 삶의 질이 풍부해진다고 생각해요. 파업이란 것이 그분들의 권리인데 정부와 시민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사설 파업 때문에 피해 받는 거 별로 없지 않아요. 저처럼 파업하면 버스 타면 되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겪이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권은혜: 김철 집합 집회에서 투수드름을 '레미제라블'이냐 물 때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태준식: 음악을 선택하기 전에 편집하면서 그 장면을 보며 많이 울었고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제 스스로 많이 슬퍼해보고 관객 분들도 그 슬픔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슬프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 음악을 택했어요. <당신과 나의 전쟁>은 그렇듯 잘 선택한, 제 작품을 대부분 내레이션이 없어요. 노래가 나오면 아예 내레이션을 효과를 보나 보다, 음악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음악 다큐멘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조금 있습니다. (웃음)

권은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동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어 오신 듯하네요.

태준식: 노동운동에 관련된 다큐만 만든 것은 아니네. 노동자류 사회적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이러한 노동자들이 운동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라고 한다면 그 생각이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작업이 힘들다고 느끼는 시기에서 앞으로는 열심히 작업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회적 현실이나 문제에 관련된 나의 일정이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자들이 시민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무조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동운동은 시민이라는 틀 속에서 토론 시민에게는 의미가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있을 거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들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은혜: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계속 노동 관련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웃음)

취재원: 김은혜(비밀명) 사진: 김지은

## TELL ME SOMETHING

**YoungKag KHD** (이영강) 1982년 11월 14일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신원동 1동 1-10동 101호 (이영강은 아무런 사무국 소속유무는 불확실함) 02-539-0396  
 유정 (이영강) 1982년 11월 14일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신원동 1동 1-10동 101호 (이영강은 아무런 사무국 소속유무는 불확실함) 02-539-0396



## 이것은 컵이 아니다

발단은 이렇다.

작년 연예인협회에 갔을 때부터 글에서 5월 30일로 확인) 갑자기 30일이나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이 컵이 한 독립 처음 생겼을 때 컵이 선물로 들어오는 거야. 이거만 남았지." 세상엔, 15년 동안 용케도 남아 있었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지도 16년, 이렇거나 한 독립협회와 서울 독립영화제와 인디다큐페스티벌이 함께 쓰는 사무실까지 30일이나 다음으로 오래될 법이다. 그에게 이 컵을 보인 생각나는 컵들이 있고 그 기억들로 인해 컵이 소중해진 것처럼, 그 마음은 나에게는 솔직히 의미만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생각하자. 기록되지 않은 기억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기억들이 कैी해지기 전에 주위 담을 수 없을까, 누군가에게는 소싯말 물러나 누군가에게는 보지않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그래서 시켜줘라. 기억을 기록하기. 조 PD, 그는 이거를 꼭 봐주세요. (아날로그 유정) 컵은 심리에서 중요해졌어. 이제 이것은 컵이 아니다.)

### 조PD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처음에 한독회를 만들고 준비위원들이 꾸러졌지. 그때 모였을 멤버들이 조영각, 오정훈, 이주영, 이만숙. 이렇게 모여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다행히도 단체들, 후원영상이나 서정집(서정영집)이나 노년(노노자카 뉴스제작단) 같은 데들은 모이는 조직들이 단단했고, 극영화 하는 사람들은 인디포럼에서 모이니 그런 동력을 갖고 독립영화회를 만들자 그랬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독립영화인들이 안정적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독립영화 제작지원이 그때는 구체적인 없었던 말이야. 표현의 자유와 제작지원, 관계는 이 두 가지가 목표였어. 그런 사무실을 어디로 할까 하던 와중에 한화 호텔이 있어, 독립 영화를 지원하고 싶는데 써야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사무실을 줄 수 있네. (웃음) 일단 만나고 그랬지. 상상도 없었는데, 영화회 배부르다 싶어서 독립영화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네트워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무실까지 보고, 김동원 감독하고 대표랑 만나고. 그렇게 사무실을 얻게 된 거지. 그때가 1981년 말? 영화가 98년 9월에 창립했으니까 그즈음이었을 거야. 관리라는 쿼터 한다가 평당 10만 원 해서 40만 원 내고, 근대 기가 팽수 갔거든. 마침 사장중에 있던 문화학교 사들도 건물을 공짜하는 바람에 공간을 옮겨야 해서, 문화학교 사들이랑 사무실을 같이 썼지. 한독회가 처음 데크도, 2년 월세라 책상 2개 들어서 내가 꾸장 하고 후송이랑 차장 하던지

**TELL ME SOMETHING**은 독립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적음 직전 또는 방금의 기억(혹은) 생생한 회상으로 진행되는 서간, 시고, 에세이들을 통해, 독립영화의 중요성과 고백을 다시 기록하려고 한다. 꼭 1000자를 넘어 5000자도 상관없다. 특은 인접한 분야(예: 문화, 연극, 음악, 영상)

들이 있다가, 김일권 PD가 홈페이지 만드는 인더넷팀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사무실 오픈 전라도 회원들이 애라고 필요 한 목록들을 꼭 짚은 거지. 청소기부터 빗자루, 컵, 다 컵이 메탈로도 보내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반손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 걸 보면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중요했지. 고사 자벌 때 사람들이 금요일도 가고,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립예술회(지금의 프리디베스트)했던 분들도 오고 기자들도 오고 서로 축하하는 분위기였지. 사무실이 넓으니까 신문까지 갖고 앉아서 부침개 부쳐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기념품이라도 선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독립영화, 관례를 만나니까' 개인 독립영화도 기획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주 오고 뒤 돌아도 거기서 하고, 나는 술 먹으면 집에 갈 자리가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다 돌아서서 소파에서 자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고, 짧은 시간 동안 한독회의 기쁨을 즐겼다고 해야 하나. 그 사무실에 한 10개월 있다가 그다음에 이사를 되게 많이 있었어. 사무실을 우리 데크 초음파 열은 게 2000년 1월 15일? 처음 1981년 말? 영화가 98년 9월 15일에 창립했으니까 그즈음이었을 거야. 관리라는 쿼터 한다가 평당 10만 원 해서 40만 원 내고, 근대 기가 팽수 갔거든. 마침 사장중에 있던 문화학교 사들도 건물을 공짜하는 바람에 공간을 옮겨야 해서, 문화학교 사들이랑 사무실을 같이 썼지. 한독회가 처음 데크도, 2년 월세라 책상 2개 들어서 내가 꾸장 하고 후송이랑 차장 하던지

허재 신미래

## RELAY TALK

남태우

대구경북사이버테크 대표  
 璞TV 뉴스디스크 진행자

## 독립영화! 무엇이 쓰는 물건인고?

독립영화라는 말은 필자에게 예전의 앵크선처럼 묘하게 풀린다. 애정도 많았으니 십수 년째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인터넷이 목욕지가 되면 디터 애정이 생기기도 마라니 말이다. 사랑하고 골치 아픈 이 독립영화는 오늘 잘게 쪼개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람이 없지. 그리고 걸 보면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중요했지. 고사 자벌 때 사람들이 금요일도 가고,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립예술회(지금의 프리디베스트)했던 분들도 오고 기자들도 오고 서로 축하하는 분위기였지. 사무실이 넓으니까 신문까지 갖고 앉아서 부침개 부쳐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기념품이라도 선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독립영화, 관례를 만나니까' 개인 독립영화도 기획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주 오고 뒤 돌아도 거기서 하고, 나는 술 먹으면 집에 갈 자리가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다 돌아서서 소파에서 자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고, 짧은 시간 동안 한독회의 기쁨을 즐겼다고 해야 하나. 그 사무실에 한 10개월 있다가 그다음에 이사를 되게 많이 있었어. 사무실을 우리 데크 초음파 열은 게 2000년 1월 15일? 처음 1981년 말? 영화가 98년 9월 15일에 창립했으니까 그즈음이었을 거야. 관리라는 쿼터 한다가 평당 10만 원 해서 40만 원 내고, 근대 기가 팽수 갔거든. 마침 사장중에 있던 문화학교 사들도 건물을 공짜하는 바람에 공간을 옮겨야 해서, 문화학교 사들이랑 사무실을 같이 썼지. 한독회가 처음 데크도, 2년 월세라 책상 2개 들어서 내가 꾸장 하고 후송이랑 차장 하던지

친 권에 가까우니 정말 원하는 주제의 영화를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독립 영화를 생각하면 예산할까? 그것은 바로 아직 이전의 우리 주변에서 독립 영화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 때문이다. 지하철에서 키보드에서 아주 조용히 흐르던 영화를 볼 수 있는 인트라극장국 되었다면 사람들이 독립 영화를 보는 건 아니다. 드라마와 게임이 열광할 뿐이다. 그 흔한 캐스트 트 방송보기도 잘 안고 풍타를 그리라고 해도 그럴 지경인데 그런데도 당장 이들의 실제 생활 환경은 여전히 모호하다.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는 온신에서 풀쩍 하고 댈며 걸리지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생장을 하는 것 같기도 심한 우울증에 걸린 것 같기도 한 느낌! 내가 십수 년간 추적해 온 이놈을 오늘 생각하겠다. 독립영화의 정의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건 이 글을 읽으니까 독자들도 충분히 알아도 다 잘 알았을 법한 알았지 모르지 않는 법이 아니다. 이놈을 잡아다 이렇게 요리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좀 극적으로 말하면 교육 콘텐츠로서의 독립영화일 것이고 소박하게 말하면 '일상 속 독립영화' 활용하기가 좋겠다. 독립영화, 그 정의답게 소재가 무궁무진하고 창작자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표현된 또 다른 새로운 영화물이다. 물론 과연 현재의 한국 독립영화와 그 리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다양한 주제를 가진 영화들이 많고 서울 독립영화제의 경우도 한 해에 즐겼음은 영화들이기

**RELAY TALK**은 서문, 사진, 텍스트, 영상, 음악, 시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독립영화에 대한 다양한 소회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참여자는 어떤 주제로 말하든 다음 글자를 추천하는 자유를 허용합니다. (편집자)

랫폼과 돌파루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 어떤 까 싶다. 일종의 공동 마케팅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이다. 극장과 다운로드라는 두 개의 시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대만 한 국가와 시간'을 고려해 보면 대만 투자자가 주목되기도 독립영화와 일상 속 어디에 걸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다. 독립영화에 대한 무료 강과 동을 통해서도 독립영화의 필요성과 관련 교육도 좋고 각종 도모를 주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음에 대한 무료 교육이나 무료 콘텐츠 제공 등도 필요 있을 것이다. 태자본이 완전히 정착한 극장만 번번 번번 사라진다고 그들이 우리들 도우주지 않는다는 건 이미 몸으로 체득한 지 오래되었던 것 같다. 독립영화는 네이마의 인디극장 등에서 제공하는 영화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좀 더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독립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꼭 들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때 독립영화라는 미셀런이 널리 퍼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과연 독립영화는 무엇이 쓰는 물건인지는 이를 논해 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법이 아니다.

# 극장전

나는 극장 앞에서 혼자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흔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친구와 같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 말이다. 그러면 덜 심심하고 덜 외로울 것이다. 비가 내리고, 나는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같이 극장으로 올라갈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 표를 받아 좌석에 나란히 앉을, 지루한 광고를 잠시도 잠담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저급이라도 좋으니 우연히 아는 사람과 마주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에 죽은 친구가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 오랜만이야.

친구가 말을 걸었을 때, 나는 명하 친구를 보았다. 영화 보러 왔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과 마주쳤고, 그 래서 반갑다고 친구는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 하지만 넌 죽었잖아.

— 영화 한 편 보러 잠깐 왔어, 내가 불만인 영화 뭐 있을까? 수천해 좋잖아?

나는 니 말인 데도 있었는데, 그는 생각하다가 말했다.

— 너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 막상 죽으면 생각이 달라져, 어떤 영화가 좋을지 골라 줘, 죽은 사람에게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 없잖아, 영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광고 시간을 할 때도 얼마 없다. 시간이 빠듯한 줄 알면서도 그는 담배 때문 에 극장 건물 밖에 있었다. 사실 그곳도 금연 구역이었지만 비가 오는 데 담배 피울 곳을 찾아 길을 가 웃거리며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 그곳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그는 반쯤 피운 담배를 바닥 에 던졌다.

— 글썽, 뭘 추천해야 할지…….

그의 발에 친구는 물었다.

— 너는 무슨 영화 보러 왔어?

— 외계인이 지구 침공하는 영화.

— 그런 영화는 흥미 없는데, 저 영화는 무슨 내용이지?

친구는 극장 입구에 나란히 붙은 포스터 중 하나를 가리켰다.

— 외계인이 경찰이 돼서 지구인 형사하고 같이 범죄를 수사하는 영화.

— 그 열의 포스터는?

— 일집으로 이사 온 외계인과 친해지는 영화.

— 저 포스터는?

— 외계인하고 지구인이 사랑에 빠지는…….

— 외계인 안 나오는 영화는 없어?

— 글썽…….

친구는 마지막 포스터를 가리켰다.

— 저건 어떤 영화야?

— 그건…… 애니메이션인데, 무슨 내용이나면…… 노래가 나와.

— 노래?

— 평범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나와. 저를 돌린 인공위성이 노래를 듣고 지구로 내려와, 내려오다 가 마법에 걸려서 소녀 모습을 하게 돼, 노래를 부른 남자는 사랑에 실패해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일족

김미환

판타지 소설가. 《정망의 구》, 《오른》 등 9편의 장편소설을 출간했고 2편의 공동단편집에 참여했다. 독립영화들을 좋아하여 몇몇 곳에 독립영화 리부를 심기도 했다. 개인 블로그에서 이문지런 글들을 확인할 수 있다. [blog.naver.com/grovener](http://blog.naver.com/grovener)

필자가 소설가이며 독립영화 제작자인 김미환 작가가 7시간짜리 소문을 단편소설 한 채 동안 주인공을 200여 개나 단편소설을 완성하는 용이도 높 300여 단편소



(\*) 정향을 감독 (우리별 일호와 일복스) 원안 스케치

소가 돼, 두루마리 휴지 모양을 한 마법사가 있고, 셋이 같이 남자에 머물면서 벌어지는 일이야. (\*) — 환상적이네.

친구는 말했고 그에게서 둘을 둘러 진물로 들어갔다. 저 영화를 볼 생각인 걸까? 또 다른 친구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는 친구가 매표소에 줄을 서고 티켓을 받아서 상영관을 찾아 걷는 동안에도 말을 걸 일무가 나지 않았다. 친구 역시 뒤를 계속 따라오는 데에 말을 걸지 않았다.

상영관으로 들어가기 직전에야 친구는 1에게 말했다.

— 왜 잘 안 되는 걸까?

뭐가 잘 안 된다는 말인지는 몰랐다.

— 영화를 보면, 항상 뭔가 잘 안 되잖아. 저를 침공하려는데 잘 안 되고, 범죄를 해결하려는데 잘 안 되고, 친구를 사귀려는데 잘 안 되잖아. 일복스와 인공위성이 사랑을 하려는데 잘 안 되고, 왜 잘 안 되는 걸까? 영화를 끝까지 보면, 그래서 결말을 알게 되면 깨닫잖아. 중간은 결말로 결정되기 전의 상태일 뿐이라는 걸, 살도 마찬가지로. 과거는 그저 미래로 결정되기 전의 상태일 뿐이거든, 삶을 끝까지 같이 보면 알게 돼.

— 마치 네가 죽었듯이?

— 그래 네가 죽었듯이, 그래서 내 삶에 대해 모두 알게 되듯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부 알고 있으면 그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란 걸 알거든. 그런데 다들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친구는 상영관 안으로 들어갔다. 또 상영관을 찾아 들어갔다. 자리에 앉지도 여전히 머리가 멍했다. 광고도 영화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분명 죽은 친구를 만났다. 오늘 만난 친구는 분명 죽었다. 본인 입으로도 죽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게 어쩌면 일일가 혹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일까. 그는 생각해 보았다.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화는 꿈이라고 하기엔 완전히 현실적이었다.

스크린에서, 외계인의 공격으로 지구인이 죽었다. 지구인은 외계인을 이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속수 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외계인의 공격에 무너지는 랜드마크들을 명하니 바라보다가, 옆에서 무슨 소리냐 들려서 돌아보니 친구가 앉아 있었다.

— 영화가 먼저 끝났어, 영화 재미있었어, 추천 고맙다는 말 하려고 왔어.

친구는 말했다.

— 내가 왜 영화를 보러 온 줄 알아요?

그걸 누가 알 턱이 없었잖아.

— 내가 살아 보지 못한 삶이 궁금해서.

친구는 말했다.

— 나중에 또 보자.

그는 친구를 붙잡아야 했다. 왜 돌아왔는지 물어봐야 했다. 가족이나 다른 친구는 만났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아니면 같이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나왔어야 했다.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는지 물어보고 배웅해 줘야 했다. 나중에 보자. 그 나중에 언제인지도 물어봐야 했다. 어릴때 먼 길을 갔을 텐데 신경 써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인사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못 했고, 친구는 사라졌다.

스크린 위에서는 여전히 영화가 진행 중이었다. 외계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지구 군인들을 보며는 중얼거렸다.

— 왜 잘 안 되는 걸까.

## 파란만장, 좌충우돌, 그들의 속사정

겨울 동안 잠시 숨을 고른 NOW가 이번엔 찾아간 곳은 독립영화와 관객들의 만남을 시종 고심하는 배급사들입니다. 창립 16년째를 맞는 독립영화 배급사의 맞춤형 인디스트리, 다큐멘터리 전문 배급사 사네마 닷, 독립영화 온라인 배급의 거장 인디플러그, 즐겁고 일관 독립영화와 배급을 모토로 하는 어뮤즈의 사람들까지 만났습니다. 신나고 흥겨운 일보다는 힘들고 속타지는 일이 훨씬 많은 게 독립영화 배급이지만, 그렇게 파란만장한 풍파 속에서도 그들은 뿌듯한 자부심과 당당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활기찬 웃음과 함께, 혹은 깊은 한숨과 함께 털어놓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 NOW의 모습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독립영화 안의 소소한 사건 혹은 기억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TELL ME SOMETHING과 전국 7의 독립영화 활동가들이 그들만의 수다를 풀어 놓는 RELAY TALK가 신설되었습니다. TELL ME SOMETHING에서는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이 한국독립영화협회 창립 당사를 회고했고, 남대우 대구경북시네마테크 대표가 시작한 RELAY TALK는 다음번엔 제주로 찾아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립영화에 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작가 김이환의 단편소설이 연재됩니다. 독립영화와 상영되는 극장을 찾아가던 문헌적이고 애절한 판타지 소설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김민아

###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 배포처

서울	송루문영상센터 오마이동	강원	강원문화예술교육사업
서울아르사네마	연스박스 총대점	경북	경북문화재단 상영
스몬지하우스	책방 이음	대전	대전문화재단
씨네240 선재	책방 블루월	대전아르사네마	대전아르사네마
씨네큐브	후마니티스 책방방	광주	광주영상제작공동체 광동
아리랑사설미디어센터	문소	광주연남	광주연남
아트나인	물고기	광주중앙	광주중앙
아트하우스 모모	상수동카페	전북	전북
인디스페이스	삼정대 카페 하우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인디플러그	이디스아빠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필름포럼	유아미인도	(지프레)LD	(지프레)LD
한국영상자료원	이리키네	대구/연남	대구/연남
K3G 상상마당 새마을	카페 공작리	통영아트홀	통영아트홀
인사아트센터	경기영점	부산/연남	부산/연남
인사아트센터	부정영상미디어센터	국도예술관	국도예술관
미디어트	삼남미디어센터	영취의연당	영취의연당
서교예술실용센터	영취공간 주안	포클라텍스	포클라텍스
서울영상미디어센터			

###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 구독 방법

1. 서울독립영화제 후원회원 인디당에 가입하면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서울독립영화제 홈페이지 ([www.slff.or.kr](http://www.slff.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종류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1호당 우송료 1,000원을 부담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101-666706 (예금주 서울독립영화제) 신청 및 문의: [prog@slff.or.kr](mailto:prog@slff.or.kr) / 02-362-9513 (신청자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 ★ 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2014

독립영화 축제 서울독립영화제가 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전국의 관객을 찾아가입니다. 2004년 시작되어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은 독립영화의 지원 확대와 지역 상영 활동자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디피크닉2014에서는 서울독립영화제2013 대상 수상작 <수련>과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이름들> 등 총 9색선 22편의 정단편 독립영화를 선보입니다.

인디피크닉2014는 독립영화 상영을 위한 저작권 해결, 상영본 및 홍보물 공급, 상영 기획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 상영 경험이 전혀 없는 그 누구라도 쉽게,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독립영화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상영을 원하는 지역 및 단체는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 02-362-9513 / [prog@slff.or.kr](mailto:prog@slff.or.kr)

## 🕶️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 사진 자원활동가 모집

독립영화 현장 곳곳을 찾아 다양한 독립영화인과 만나는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와 함께할 사진 자원활동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독립영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진 촬영에 자신 있는 누구나

모집 기간 2014년 4월 30일(수)까지

활동 기간 2014년 5월부터 NOW 발간 시 개인 일정 조절

(2~3개월마다 발행)

지원 방법 서울독립영화제 홈페이지([www.slff.or.kr](http://www.slff.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자신의 기존 촬영물(포토북/프리미엄)을 첨부하여 이메일([press@slff.or.kr](mailto:press@slff.or.kr))로 접수

문의 02-362-9513 / [press@slff.or.kr](mailto:press@slff.or.kr)



NO.3 | 2014.04.08

발행처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책임편집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  
편집주간 조병작 기획총괄 김용민 편집총괄 김연아  
편집위원 김승호, 김지은, 박현진, 신미라, 이도훈, 최혁규  
사진 감수인 디자이브 인력 노현정사

등록번호 2001년 12월 17일 등록번호 제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5길 65-5 (공덕동 82-4) 2층 (121-600)  
전화 02-362-9513, 02-334-3166 팩스 02-363-3154 이메일 [prog@slff.or.kr](mailto:prog@slff.or.kr)  
홈페이지 [www.slff.or.kr](http://www.slff.or.kr) | <http://indienow.kr>  
독립영화 인터뷰 전문 매거진 NOW는 영리활동유형의 지원으로 발행됩니다.